

# 사회사적 디자인사 연구를 위한 방법론 모색

A Study on the Socio-Cultural Approach to Design History in Korea

주저자 : 강현주 (Kang, Hyeon-joo)

인하대학교 시각정보디자인전공

이 논문은 2004학년도 인하대학교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INHA-31530)

## 1. 서론

- 1-1 연구 대상과 목적
- 1-2 연구 범위와 방법

## 2. 디자인사 서술에서의 사회사적 접근

- 2-1 디자이너 중심의 디자인사
- 2-2 사회사적 관점의 디자인사

## 3. 일상문화에 대한 사회사적 접근 사례

- 3-1 <일상·기억·역사>
- 3-2 <캠페인을 보면 사회가 보인다>
- 3-3 <신화 없는 탄생: 한국 디자인 1910-1960>

## 4. 디자인의 사회사와 질적연구방법론

- 4-1 일상 연구와 디자인의 사회사
- 4-2 질적연구방법론 도입의 필요성

## 5. 결론

## 참고문헌

## (要約)

본 연구는 디자인의 사회사가 한국디자인의 역사를 연구하고 교육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유용한 방법론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디자인에 대한 사회사적 접근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 우선 제2장에서는 니콜라우스 페브스너 이래 지속되어 온 디자이너 중심의 디자인사 서술 방식과 이를 비판하며 사회사적 관점의 디자인사를 주장했던 에이드리언 포티의 디자인사 서술 방식을 비교하였다. 제3장에서는 한국 근현대기 일상문화와 시각문화에 대한 사회문화적 접근을 시도했던 <일상·기억·역사>, <캠페인을 보면 사회가 보인다>, <신화 없는 탄생: 한국 디자인 1910 - 1960> 등 세 개의 국내 전시회를 통해 한국디자인에 대한 사회사적 접근 방식의 사례를 찾아보고자 했다. 제4장에서는 디자인사 연구와 교육에 있어서 디자인의 사회사적 접근 방식이 갖는 의미와 특성 등을 고찰해보고 질적연구방법론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논하였다.

## (Abstract)

This study originates from the following problematic: Can a social history of design provide a useful methodology for the research and education of Korean design? For the understanding of the modes of socio-cultural approach to design, the chapter 2 compares the narrative mode of designer-centered history promulgated under the influence of Nikolaus Pevsner and that of socio-cultural approach advocated by Adrian Forty. The chapter 3 studies the cases of socio-cultural approach to Korean design through the domestic exhibitions like "Everyday Life, Memory and History," "A Glimpse into the Society through Campaigns," and "Design Culture in Korea 1910-1960" which attempted the socio-cultural approach to the visual culture of modern/contemporary Korea. In the chapter 4, this study investigates into the meanings and characteristics of socio-cultural approach in the design research and education, and argues for the necessity of the introduction of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 (Keyword)

Nikolaus Pevsner, Adrian Forty, social history of design,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 1. 서론

## 1-1 연구 대상과 목적

<일상·기억·역사>, <캠페인을 보면 사회가 보인다>, <신화 없는 탄생: 한국 디자인 1910-1960> 등 세 개의 전시회는 기획의 도나 학문적 배경 등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근현대기 한국의 일상 문화와 시각문화의 특성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고찰해보고자 했다는 점에서 공통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역사학이나 문학, 사회학, 문화인류학 등 인문사회과학의 여러 분야에서 최근 몇 년간 한국 근현대기의 일상문화를 주제로 한 연구서들이 속속 출간되고 있으나<sup>1)</sup>, 해당 시기의 시각자료들을 직·간접적으로 관찰하고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전시회라고 하는 형식은 디자인사 연구와 교육에 있어서 매우 유용하다.

[표-1] 전시회 개요

전시 제목	일상·기억·역사	캠페인을 보면 사회가 보인다	신화 없는 탄생
부제	해방후 한국미술과 시각문화	표어·포스터·전단 100년전	한국 디자인 1910-1960
기간	1997. 9. 1 - 11. 27	2002. 11. 28 - 2003. 6. 30	2004. 9. 24 - 10.17
장소	광주시립미술관	서울시립대 박물관	디자인미술관
대상 시기	해방이후부터 1990년대까지	개항시기이후 현재까지 100년	191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전시 구성	각 시대별 특징을 개관하고 포스터, 판화, 달력, 배라, 광고, 상표, 사진, 간판, 만화, 잡지 등 시각 대상물들을 주제별로 구성	포스터, 표어, 전단 약 350여점을 캠페인의 주제별로 구성	집, 소비, 거대기계, 커뮤니케이션, 산업미술가 등 총 5개의 키워드로 구성
전시 성격	미술과 시각문화의 다양한 매체와 표현방식을 통해 사회문화적 현상 해석	생활사적 접근 방식으로 근현대사 시각자료 전시	일상생활과 시각문화에 초점을 두고 디자인의 생산, 유통, 소비 체계를 조망
학문적 배경	미술 및 예술 일반	역사학	디자인

본 연구자는 일상생활과 시각문화, 물질문화에 대한 관심 영역과 연구 대상을 일정 부분 공유하면서 미술, 역사, 디자인 등 각 분야에서 학제간 연구를 시도한 위의 세 전시회들을 한국 근현대기 디자인에 대한 사회사적 접근 사례로서 파악하고 전통적인 디자인사 서술 방식과 이러한 사회문화적 접근 방식의 차이점, 현재적 의미, 향후 디자인사 서술과 디자인문화연구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 고찰해보고자 한다.

1) 『서울에 탄소를 허하라』 (김진승, 현실문화연구, 1999), 『모던 뽀이, 경성을 거닐다 - 만민문화로 보는 근대의 얼굴』 (신명직, 현실문화연구, 2003), 『연애의 시대 - 1920년대 초반의 문화와 유행』 (권보드래, 현실문화연구, 2003), 『오빠의 탄생 - 한국 근대 문학의 풍속사』 (이경훈, 문학고지성사, 2003), 『근대의 책 읽기 - 독자의 탄생과 한국 근대문학』 (천장환, 푸른역사, 2003), 『매혹의 질주, 근대의 횡단』 (박천홍, 산처럼, 2003) 등의 책들이 있다.

## 1-2 연구 범위와 방법

지난 세기 동안 디자인 분야는 전 세계적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해왔고 그것은 한국에서도 예외가 아니지만 디자인을 개념적으로 명료하게 정의하거나 디자인사 서술의 보편적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은 일이다.

존 에이 워커는 디자인사는 디자인을 일정한 사회적, 역사적 현상으로서 설명하려는 목적을 지닌 비교적 새로운 지식 분야의 이름이며 디자인사(design history)의 연구 대상이 바로 디자인의 역사(the history of design)라고 말한 바 있다. 디자인사 서술을 지도 제작에 비유한 그는 어떤 디자인사도 결코 모든 사람들이 전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단일하고 완전하며 동질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는 없으며 다만 언제나 중복되고 다양한 디자인사들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한 나라를 그린 여러 지도들이 각각 영토의 다른 면모에 초점을 맞출 수 있으며 이것들을 따로따로 취하는 것보다 함께 취할 때 더욱 완벽한 보고서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sup>2)</sup>

본 연구는 <일상·기억·역사>, <캠페인을 보면 사회가 보인다>, <신화 없는 탄생: 한국 디자인 1910-1960> 등 세 개의 전시회가 한국 근현대사 시기의 일상생활의 풍경을 담아내고자 시도했던 일종의 역사 지도 그리기 중의 하나였다고 보고 그 지도들 속에 나타난 디자인의 지형이 보편사로서의 디자인사 서술과 맺고 있는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사회사적 접근 방식과 물질문화에 대한 문화인류학적 해석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지는 이들 세 전시회의 공통점은 전시의 대상물을 당대를 대표하는 질적으로 우수하고 탁월한 것들이 아니라 대체로 지난 세기동안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구성해 온 익명적이고 버려진 사물과 이미지, 그리고 공간 들로 구성된 점이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디자이너가 만든 디자인 결과물이라고 하는 디자인사의 '전경(前景)'보다는 '후경(後景)', 즉 사회적 맥락을 중시하고 조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디자인이나 예술에 있어서 전경과 후경의 관계는 역사 속에서 늘 일종의 '자리바꿈의 관계로 얽힌 과정'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으며, 그들 사이에는 '실질적이며 복잡한 관계망'이 존재하고 또 그 '중개 과정은 그 자체가 역사적으로 형성되고 또 역사적으로 변질된다'는 측면에서 매우 흥미로운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3)</sup>

본 연구자는 세 전시회의 사례를 살펴 보면서 이 전시회들을 관통하는 공통된 문제의식과 방법론은 무엇이며, 분야간의 경계를 넘어서 학제간에 시도되는 사회문화적 접근 방식의 특성과 의미, 그리고 한계 등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러한 접근 방식이 디자인사 서술과 교육에 미치는 영향 등은 어떤 것인가 하는 점들을 고

2) 존 에이 워커, 정진국 역, 디자인의 역사, 까치, 1995, pp.15-17.  
3) 전경(예술, 디자인)이 어떻게 후경(사회적 맥락)과 관계를 맺는가에 대해 존 에이 워커는 T. J. 클라크의 다음과 같은 문장을 인용해 설명하고 있다: 예술의 사회사가 특수한 연구 분야라고 한다면 그것은 ... 자리바꿈의 관계로 얽힌 과정이다. ... 내가 찾고 싶은 것은 기계적인 이미지의 "반영" 이면에서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거래가 무엇일까 하는 점과, 어떻게 "후경"이 "전경"으로 자리를 바꾸는지를 알고자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형식과 내용 사이의 유추 대신에, 그들 사이의 실질적이며 복잡한 관계망을 발견하려는 것이다. 중개 과정은 그 자체가 역사적으로 형성되고 또 역사적으로 변질된다. 각각의 작가들의 경우마다, 각각의 작품마다, 그 중개 과정은 역사적으로 특수한 것이다.(존 에이 워커, ibid., pp.180-181.)

찰해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우선 제2장에서는 디자이너 중심의 디자인사 서술 방식과 디자인에 대한 사회적 접근 방식의 차이점을 비교해보았고, 제3장에서는 한국에서 시도된 디자인의 사회적 접근 사례로서 <일상·기억·역사>, <캐페인을 보면 사회가 보인다>, <신화 없는 탄생: 한국 디자인 1910-1960> 등 세 개의 전시회를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디자인에 대한 이러한 사회문화적 접근 방식이 한국디자인사 서술과 한국디자인문화연구에 미치는 영향 및 향후 연구의 방향 등에 대해서 모색해보았다.

## 2. 디자인사 서술에서의 사회적 접근

본 장에서는 니콜라우스 페브스너가 『근대 운동의 개척자들: 윌리엄 모리스로부터 발터 그로피우스까지』<sup>4)</sup>를 출간한 이래 일종의 전통적 디자인사 서술 방식으로서 자리매김해 온 디자이너 중심의 디자인사 서술 방법과 이를 비판하며 디자인에 대한 사회사적 접근을 시도한 에이드리언 포티의 『욕망의 사물, 디자인의 사회사』<sup>5)</sup>를 중심으로 디자인사 서술 방식의 차이점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 2-1. 디자이너 중심의 디자인사

니콜라우스 페브스너의 『근대 운동의 개척자들: 윌리엄 모리스로부터 발터 그로피우스까지』는 1936년에 런던에서 초판이 출간된 후, 1949년 미국 뉴욕의 근대미술관(MoMA)에서 제목 및 내용의 상당 부분이 보완되어 제2판이 출판되었다.<sup>6)</sup> 페브스너는 이 개정·증보판의 책 제목을 『근대 디자인의 개척자들: 윌리엄 모리스로부터 발터 그로피우스까지』로 바꾸었고, 이후 1983년 그가 작고할 때까지 여러 차례 개정판을 출판하였다. 한국어 번역역서는 『근대디자인의 개척자들』이라는 제목으로 1986년에 출판이 되었는데 이 책은 1982년에 나온 개정판을 완역한 것이다.<sup>7)</sup>

디자인사를 근대운동의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는 이 책은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960년에 나온 펄리칸판 서문에서 페브스너는 '내가 처음 이 일에 달려들었을 때만해도 진지한 학자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던 주제가 작금에는 미국, 독일 심지어는 영국 학생들까지도 논문이나 연구보고 따위에서 빈번히 들먹거

리는 즐거운 사냥터의 역할을 하게 된 사실을 보느라 자못 흐뭇한 일이 아닐 수 없다'<sup>9)</sup>고 개인적 감회를 밝히기도 했다.

페브스너의 책은 오늘날 디자인사를 연구하는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연구의 출발점이자 혹은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파악하고 있는 근대 디자인의 서사를 최초로 제공한 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빅터 마골린은 페브스너가 지속적으로 개정판을 내면서도 대체로 디자인사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바꾸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그가 말년까지도 자신의 초기 저술에 대하여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sup>10)</sup> 찬사와 더불어 지속적인 비판과 논쟁의 대상이 되어온 페브스너의 디자인사 서술이 갖는 한계와 문제점에 대한 가장 신랄한 비판은 아마도 에이드리언 포티가 『욕망의 사물, 디자인의 사회사』의 제 11장 디자인, 디자이너, 디자인 연구에서 행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사적 관점에서 디자인의 역사를 서술한 포티는 페브스너와 그의 영향을 받은 디자인 역사가들이 서술해온 디자인사를 디자이너 개인의 역량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역사 서술 방식이라고 지적하고 이것은 디자인과 사회의 연관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포티는 페브스너를 비롯한 다른 연구자들이 디자이너 개인을 강조했던 이유는 디자인을 누가 했느냐가 아니라 디자인이 무엇이나를 다루려고 할 때 부딪히게 되는 난관에 비해(디자이너) 개인을 파고드는 편이 상대적으로 안전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sup>11)</sup>

본 연구자의 경우 페브스너의 디자인사 서술 방식이 비록 포티가 지적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는 해도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읽히고 있는 것은 아마도 디자이너 중심의 역사 서술이 갖고 있는 교육적 특성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디자이너가 과연 무엇이나, 디자인과 사회는 어떤 연관 관계 속에 있는 것인가 하는 점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실제로 사회 속에서 디자이너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자신과 디자인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어떤 비전과 목표를 가질 것인가 하는 점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디자인 생산과 디자이너의 창의성에 초점을 맞춘 페브스너 식의 디자인사 서술은 그 한계에도 불구하고 디자이너의 교육에 유용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디자인사를 타 분야와 구별되는 특수사로서 구성하고자 할 때 분야 내적인 서사의 일관성 확보는 정체성 수립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역사 서술이 기존의 디자인 활동을 일방적으로 정당화하거나 선전하고 홍보하는 도구적 성격만을 지니거나 포티의 지적처럼 일종의 정전(canon)으로 군림하며 유일한 디자인사인양 여겨져서는 곤란하겠지만 말이다.

### 2-2. 사회사적 관점의 디자인사

일상문화 차원에서 디자인의 생산과 유통, 그리고 소비의 전체 체계와 과정을 주목함으로써 개별 디자이너들과 그들의

4) Nikolaus Pevsner, *Pioneers of the Modern Movement from William Morris to Walter Gropius*, Faber & Faber, 1936.

5) Adrian Forty, *Objects of Desire: Design and Society since 1750*, Cameron Books, 1986. (에이드리언 포티, 허보운 역, 욕망의 사물, 디자인의 사회사, 일빛, 2004.)

6) Nikolaus Pevsner, *Pioneers of Modern Design from William Morris to Walter Gropius*, Museum of Modern Art, 1949.

7) 니콜라우스 페브스너, 서지상 외 역, 근대디자인의 개척자들, 대신기술, 1986. 이 책의 앞부분에는 1933년 초판의 서문과 1948년 제2판 서문, 그리고 1960년 펄리칸판 서문, 그리고 1968년과 1978년 판에 대한 간략한 언급 등이 실려 있다. 한국에서 번역, 출판된 페브스너의 또 다른 책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니콜라우스 페브스너, 이대일 역, 근대 건축과 디자인: 산업혁명에서 20세기 초반까지, 미진사, 1986.

8) 모리스에서 그로피우스에 이르기까지의 예술에 관한 제이론, 1851년부터 모리스와 예술 및 공예운동에 이르기까지, 1890년의 회화, 아르누보, 19세기의 공학과 건축, 1890년에서부터 1914년까지의 영국, 1914년 이전의 근대운동 등으로 구성됨.

9) 니콜라우스 페브스너, 서지상 외 역, *ibid.*, 1986, p.8.

10) Victor Margolin, *Design History and Design Studies, The Politics of the Artificial: Essays on Design and Design Studies*,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2, p.221.

11) 에이드리언 포티, *ibid.*, p.295.

작업에 집중된 디자인사 서술 방식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디자인의 사회사적 접근 방식은 미술사나 다른 예술 분야에서 이미 제기된 방법론 중의 하나였다.<sup>12)</sup> 작가 중심의 접근 방식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했던 미술사가인 하인리히 뵐플린의 제자이기도 한 지그프리트 기디온은 『기계화가 지배한다: 익명적 역사에 대한 고찰』<sup>13)</sup>을 통해 공장생산, 농업, 그리고 가정에 끼친 기계화의 충격 등을 추적하고자 했다. 이 책은 디자인의 역사적 전개 과정뿐만 아니라 산업 및 테크놀로지, 사회관습 등의 역사를 포괄하여 다루고자 했다는 점에서 디자인의 사회사를 지향한 초기 저술이자 기초 텍스트라고 평가되고 있다.<sup>14)</sup> 하지만 에이드리언 포티는 기디온이 사용한 사회적 의식이라는 접근법은 역사 해석이 디자인을 결정한다는 일반적인 관념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오류를 갖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자신이 『욕망의 사물, 디자인의 사회사』에서 시도한 디자인의 사회사적 접근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sup>15)</sup>

1986년에 영국에서 초판이 출간된 후 2004년에 한국어로 번역, 소개된 『욕망의 사물, 디자인의 사회사』는 종래의 모더니즘 중심, 디자이너 중심의 디자인사 서술을 넘어서 디자인에 대한 본격적인 사회사적 접근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책이다. 이 책은 1750년부터 198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해당 시기에 대한 연대기적 서술 방식이 아니라 선택한 몇 개의 주제를 심도 있게 다루어가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포티는 책의 서문에서 각 장을 제각각 독립적으로 설계했지만, 모두 합쳐져서 우리 문화 속에 존재하는 디자인의 의미를 알리고, 우리의 삶과 정신에 미치는 디자인의 영향력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기획했다고 밝혔다.

포티는 디자인의 미학적 측면과 그것의 제작조건은 서로 분리될 수 없으며, 바로 이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시사하는 것이 바로 ‘디자인’이라는 말의 특성이라고 보았다. 그는 이전의 디자인사학자들이 디자이너가 마치 생산의 주역인 것처럼 암시하면서 디자인의 변천을 일종의 진화론적 입장에서 설명해온 것은 디자인과 사회의 연관 관계를 잘못 이해한 것이며 자신의 책에서 이야기 하는 ‘디자인의 역사’란 바로 사회의 역사이며 따라서 변천에 대한 모든 해석은 디자인이 어떻게 근현대 경제에 영향을 끼치고,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한 이해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말하였다.

진보의 이미지, 최초의 산업 디자이너, 디자인과 기계화, 디자인의 다양성, 가정, 사무실, 위생과 청결, 전기-미래의 연료, 가사노동의 절약, 디자인과 기업 이미지, 디자인·디자이너·디자인 연구 등 총 11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각 주제에 대한 내용의 엄밀성이나 완성도 때문보다는 디자인사 서술에 있어

서 사회를 중심에 놓음으로써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디자인에 대한 학제간 논의를 떠나갈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될 수 있다.

### 3. 일상문화에 대한 사회사적 접근 사례

본 장에서는 한국 근현대기 시각자료들을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역사적으로 조망한 <일상·지역·역사>, <캠페인을 보면 사회가 보인다>, <신화 없는 탄생: 한국 디자인 1910-1960> 등 세 개의 전시회를 디자인의 사회사적 접근 방식의 사례로서 파악하고 그 내용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연구 사례로서 이 세 개의 전시회를 선정한 이유는 다루고 있는 전시의 대상이나 시기, 전시기획 상의 문제의식 등에 있어서 비교적 많은 공통점이 있다고 파악했기 때문이다. 물론 이 세 전시회가 디자인의 사회사적 접근 방식을 본격적인 연구방법론으로 채택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상문화와 시각문화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과 사회문화적 해석의 필요 속에서 구체적인 자료들을 제시하고 또 이러한 자료들이 일상생활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주목했다는 점에서 사회사적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에이드리언 포티는 디자인은 사회작용의 한 부분이며 디자이너 개인에 대한 지나친 관심을 거둬들여야만 디자인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또한 일상의 물질적인 면에 우리를 동화, 순응시키는 관념과 신명의 구현에 디자인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비로소 실감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즉 사회적 관계에 대한 세상 관념들을 구체적 사물의 형태로 전환시키는 디자인 방식에 대한 탐색이야말로 디자인의 사회사라는 것이다.

#### 3-1. <일상·지역·역사>

1997년에 열렸던 광주비엔날레의 특별전으로 기획된 <일상·지역·역사> 전시회의 부제는 ‘해방 후 한국미술과 시각문화’이다. 사진, 표어, 광고스틸, 만화 등 과거 시각문화 자료들을 한 자리에 모아 전시한 일종의 한국 근현대기 시각문화에 대한 다큐멘터리적 성격을 지녔던 이 전시회의 기획 방향이나 전시 구성은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이며 실험적인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전시회의 기획안에는 전시의 목적이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져 있다.

이 전시는 시각문화 현상들과 순수미술 사이를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해방 이후 현대사회를 되짚어보려는 전시다. 미술을 통해 사회를 점검하거나 시각문화를 통해서 역사를 재구성하려는 이 전시는 일상을 축으로 체험되는 현상들을 시각화시키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 전시는 미술이라는 미학적 범주에서 외려지지 않는 일상의 문화나 사회적 현상들을 점검하는 한편 각 시대의 사회문화적 현상을 해석하는 미술과 시각문화의 다양한 표현방식에 주목할 것이다.<sup>16)</sup>

12) 사회사적 접근 방식으로 예술의 문제를 다룬 저술 중 한국에서 가장 일찍, 그리고 널리 읽혀진 책으로는 아르놀트 하우저의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를 들 수 있다. 이 책은 1974년에 한국어판이 처음 출판되었고 1999년에 총 4권으로 개정판이 출판되었다. (아르놀트 하우저, 백낙청 외 역,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 창작비평사, 1999.)

13) Siegfried Giedion, *Mechanization takes command, a contribution to anonymous history*, Oxford University Press, 1948.

14) 존 에이 워커, *ibid.*, p.162.

15) 에이드리언 포티, *ibid.*, p.295.

16) <http://www.gwangju-biennale.org/www2002/last-biennale/2000/korean/magazine/9702/maga2-15-all.htm>

이 전시회를 담당했던 김진송 큐레이터는 한국 근현대기에 등장한 시각적 체험을 점검하기 위해 미학적 구성보다는 사회학적 접근을 우선시 했고, 해방 50년의 시각문화 생산물들이 기록해내는 일상들을 통해 그 자체로 시각문화의 역사를 살펴보고자 했다는 점을 밝히기도 했다. 가족사진이나 배라, 광고, 전단, 포스터, 삽화, 만화 그리고 약간의 시각적 오브제 등으로 구성된 이 전시회는 당시에 상반된 평가를 받기도 했는데 그것은 미술과 비미술의 경계, 시각문화의 개념 규정 등에 대해 서로 엇갈린 의견의 차이 때문이었다. 이 전시회는 크게 시대적인 구분과 분야별 범주로 나누어져 구성되어 있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2] <일상·기억·역사>

전시 구성		
개관	일상, 예술, 역사	
시대	해방공간 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미술의 현대성: 그 실체를 찾아서	시민판화 홍보 포스터 평화재건 달력 한국전쟁 배라 정치선전물(북한)
	대중소비사회로의 이행과 광고의 논리	광고디자인(한홍택) 광고사진(김한웅) 상표
	일상과 기록으로서의 사진사	일상풍경
	해방이후 한국영화: 근대성과 상애	영화간판(홍용만) 영화스틸사진 영화광고
분야	편견과 질곡을 극복한 영상산업의 총아	50년대 만화(김성환) 만화, 만평 만화잡지, 포스터 만화책
	한국건축의 전통과 근대	민족양식 건축
	벽장그림에서 브로마이드까지	딱지본 레슬링 포스터 레코드 자켓 국극단 포스터 쇼 포스터 가판지
	가난과 풍요의 패션	잡지창간호
	연표	시기: 1945년-1996년 분류: 사회문화 일반, 미술 광고, 영화, 만화, 건축, 패션

2004년에 열렸던 <신화 없는 탄생: 한국 디자인 1910-1960>를 기획한 디자인미술관의 김상규 큐레이터는 전시회 서문에서 1997년에 열렸던 <일상·기억·역사> 전시회는 이전과는 다른 관점 및 다른 맥락에서 한국의 디자인을 돌아보게 만든 주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사실 <일상·기억·역사>는 디자인을 염두에 둔 전시는 아니었지만 한국의 디자인문화를 예술의 사회사적 관점에서 다룬 전시회였다고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의미의 미술이 아니라 시각문화의 형태로 확장된 형태로서의 미술을 보는 새로운 시각은 곧

일상생활을 구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온 디자인과 바로 맞닿아 있는 것이며 이것은 곧 사회사적 관점에서 디자인을 바라보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 3-2. <캠페인을 보면 사회가 보인다>

서울시립대학교 박물관에서는 2002년 11월 28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 <캠페인을 보면 사회가 보인다>라는 제목으로 한국 근대 100년간의 중요한 표어와 포스터, 전단 등을 모아 특별전을 개최한 바 있다. 근현대사의 인쇄물 자료들을 충실히 보여준 이 전시회는 [표-3]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졌다.

[표-3] <캠페인을 보면 사회가 보인다>

전시 내용	
자강개혁, 실력양성 캠페인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
황국신민화, 전시총동원캠페인	우리들은 대일본제국의 신민입니다/ 가래와 호미는 우리의 총검
영농 캠페인	너도 나도 미국 중수 비약운동/ 모대개량, 앵미페발 / 묘판을 개량하고 종자에서 악미를 골라내자/ 미곡 증산 단당 420kg 돌파운동/ 협동으로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하자/ 양장은 뽕나무밭의 재배 관리로부터/ 전매는 국가 재정의 기반: 담배 인삼 장려/ 면화재배는 농가의 중추: 삼베, 면화, 축산 장려/ 가마니와 새끼를 많이 낚시다
생활개선 캠페인	생활개선은 우선 물든 옷 입는 것으로부터/ 서로 조심하여 손님(두창)을 막자/ 폐결핵균을 박멸하자/ 선진국 수준으로 기생충을 없애자/ 배우자 우리국민, 가르치자 우리한글/ 매주 수요일, 토요일은 무미일(無米日)/ 일소하자 허례허식 실천하자 의례준칙/ 국가는 재건시대, 계량은 미터시대/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새질서 새거리 교통 캠페인/
인구와 가족계획 캠페인	한사람도 빠지지 말고 사실대로 신고하자/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저축, 납세 캠페인	저축은 채권으로부터/ 한사람이 일원 아껴 3백만이 3백만원/ 납세의 의무를 다하자
자연보호 캠페인	아까시아 연료림을 만들자/ 개진불도 다시보자/ 자연속에 사는 우리 보호받고 보호하자/ 보존하자 활엽수
반공 캠페인	잊지말자 피에젓은 6.25/ 시간의 자유로운 사용도 민주주의의 한특징이다/ 한미원조(韓美援助)와 항미원조(抗美援助)/ 원호하자 유가족
선거 캠페인	버리지말자 한표, 총후의 의무/ 열리다 신조선 재건의 서막 총선거전/ 못살겠다. 갈아보자/ 빼짐없이 투표하고 무효없이 바로표자

<캠페인을 보면 사회가 보인다>에서 다루어진 인쇄물들의 경우 근현대기 한국 사회에서의 시각 커뮤니케이션 형식과 인쇄기술의 발전과정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해 주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추후에 이러한 시각물들이 어떤 경로를 거쳐 생산되고 유통되며 소비되어 왔는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증적이며 분석적인 연구가 필요하리라 보며 각 인쇄물들의 인쇄방식이나 사용된 종이, 레이아웃 방식, 색채 등에 대한 디자인적 분석과 접근을 통해 당시의 기술적 조건이나 미적 취향, 디자이너들의 존재 방식과 활동 범위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주제의 측면에서도 프로파간다 디자인,

폴리컬 그래픽스(political graphics) 등의 성격을 지닌 한국 근현대기의 캠페인들이 지닌 특징을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는 캠페인들과 비교하거나 외국의 사례들과 비교해보는 작업 역시 필요하리라 본다.

근현대사 자료 전문박물관으로서 꾸준한 연구조사 및 전시활동을 해오고 있는 서울시립대학교 박물관의 경우 역사연구의 한 방법으로서 생활사적 접근을 통해 표어와 포스터, 전단, 엽서, 지도 등 다양한 매체와 사물 등을 조사, 수집, 보관, 전시해오고 있는데 이러한 활동들은 한국 근현대기 시각문화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디자인사 연구자들이 관심을 갖고 주목해볼 만한 점이라 생각된다. 왜냐하면 이곳의 생활사 자료들은 대부분 디자인사와 디자인문화연구의 기초자료로서 유용한 가치를 지닌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전시회 이외에 그 동안 서울시립대학교 박물관이 기획한 한국 근현대사 자료 전시회로는 <우리들이 살아온 20세기 - 생활사 자료전>(2000), <철도와 20세기 - 우리의 삶>(2001), <엽서로 보는 근대 이야기>(2003), <땅의 흔적, 지도 이야기>(2004) 등이 있다.

### 3-3. <신화 없는 탄생: 한국 디자인 1910-1960>

앞서 언급했던 두 개의 전시회 사례가 디자인이나 디자인사 혹은 디자인문화라는 용어를 전면에 내세우거나 의식하지 않고 이루어진 전시회였다면 2004년 9월 14일부터 10월 17일까지 예술의전당 디자인미술관에서 열렸던 <신화 없는 탄생: 한국 디자인 1910-1960>은 한국디자인에 대한 사회문화적 접근을 본격적으로 시도한 전시회였다고 할 수 있다. 이 전시회는 디자인문화라는 관점에서 1910년대부터 1960년대 이르는 한국 근현대사 시기의 일상생활환경을 집, 소비, 거대기계, 커뮤니케이션, 산업미술가 등 다섯 가지 범주로 나누어 구성을 했다.

[표-4] <신화 없는 탄생: 한국 디자인 1910-1960>

전시 구성	
집 도시 거주민의 꿈	주택의 대량생산/ 도시의 주택사정/ 도시형 한옥의 실내/ 문화주택/ 새로운 사물/ 서양식 가구/ 실내 디오라마: 새로운 사물 배치/ 주부의 얼굴/ 전쟁 이후: 가족과 집/ 이상적인 가정/ 이상적인 부엌/ 난방, 조명, 취사 설비의 개량/ 사물들: 라디오
소비: 행복의 이미지들	백화점(쇼윈도, 광고)/ 소비공간의 정경/ 도심의 정경/ 교외지역/ 교외지역의 정경/ 사물들: 자동차
거대기계: 국가, 전쟁, 공장	전쟁의 기념/ 군수공업화/제반시설: 철도, 도로, 항만, 전기/ 전쟁의 일상화/ 사물들: 비행기/
커뮤니케이션: 시각언어	지도, 통계도표, 그래프/ 상표와 광고
산업미술가: 임명된 직업	이왕직미술품제작소/ 도면/ 관립공업전습소/ 신성공예사: 김진갑, 백태원/ 공예와 도안/ 동경유학(한홍택)/ 한국공예시범소(민철홍)/ 금성사 공업 의장실(박용귀)/
연표	1910년-1960년까지

김상규 큐레이터는 이 전시회를 통해 해당 시기의 '한국디자인'이 아니라 한국에서의 디자인 활동, 그리고 그 활동이 가졌던 광범위한 맥락을 조망하고자 했으며 따라서 이 전시

회가 191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의 시기에 일반인들이 새로운 시각문화를 경험하던 접점들과 그 주변의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 기획 되었다는 점을 밝혔다. 그는 디자인의 개념을 생산자의 입장에서만 파악하거나 서구 모던 디자인의 근대 서사를 그대로 한국디자인사에 적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한국 근현대기의 디자인 관련 사료 자체가 역사를 말하게 하는 방식으로 전시회를 구성하고자 했다.

이러한 기획자의 의도에 대해서는 몇 가지 비판적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는데 본 연구자가 접한 내용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이 전시회를 과연 디자인사 전시회라고 볼 수 있는가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입장인데 이것은 디자이너와 디자인 제도를 중심으로 한 일종의 분야사를 기대했던 사람들의 반응이었다. 둘째는 한국 근현대기 디자인 역사와 디자인문화를 다루는 기획자의 관점과 역사적 해석이 명료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다양하고 중층적인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두고자 했더라도 전시에 대한 기획자의 기본적 시각과 문제의식, 쟁점 등은 명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만일 그런 부분이 잘 파악되지 않으면 전시 내용의 신뢰성이나 전시의 완성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1997년에 열렸던 <일상, 기억, 역사> 전시회의 경우 기존 미술과의 새로운 관계 설정과 일상문화, 시각문화에 대한 기획자의 관점이 전시회와 도록을 통해서 비교적 분명히 드러난 반면 <신화 없는 탄생: 한국 디자인 1910-1960>에서는 이러한 점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위에서 지적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본 연구자 역시 공감하는 바가 크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디자인의 역사를 다루면서 디자인을 단순히 디자이너와 디자인 생산, 디자인 제도 내의 문제로만 국한 시키지 않고 일상적인 사물과 이미지, 공간의 전체적인 생산과 유통, 그리고 소비의 문제까지를 포괄하려고 시도한 점이나 해당 시기의 자료들을 충실히 수집하여 정리하고자 했다는 점 등은 높이 평가하고 싶다. 그리고 앞서 지적된 문제점들은 향후 후속 연구나 전시회 등을 통해서 점차 보완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 4. 디자인의 사회사와 질적연구방법론

### 4-1. 일상 연구와 디자인의 사회사

제3장에서 살펴 본 <일상·기억·역사>, <캠페인을 보면 사회가 보인다>, <신화 없는 탄생: 한국 디자인 1910-1960> 등 세 전시회의 공통점은 한국 근현대기 '일상(日常)'에 대한 관심과 주목이다. 1990년대 후반 이후 한국 사회 전반에서 문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본격화되기 시작한 일상 연구는 사회학, 인류학, 민속학, 문화연구, 생활사 등 여러 인문사회과학 분야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학제간 연구 영역을 마련해가고 있다.<sup>17)</sup> 디자인 분야에서도 일상 연구의 중요성을 인식

17) 한국사회사학회는 2005년 2월 3일부터 4일까지 "일본 제국주의의 지배와 일상생활의 변화"라는 주제로 특별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움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가 일상생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여 한국에서의 식민지적 근대의 형성과정과 그 특징을 해명하고자 한 것이었다. 1980년 이후 사회사, 역사사회학 분야의 주요 저작을 대상으로 하는 독서회 성격을 띠었던 한국사회사연구회는 1994년에 조직을 개편하면서 한국사회사학회를 설립하였고 현재 월

하고 인문학적인 접근 방식과 방법론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시도들이 대학의 디자인사나 디자인론 수업 등에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육망의 사물, 디자인의 사회』를 한국어로 옮긴 허보윤은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의 디자인사 교육 현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한 바 있다.

... 80년대에 출간된 한물간 구조주의를 운운하는 책을 번역서로 내는 이유는 분명하다. 늦었지만 유효하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 디자인사 교육의 현실을 감안할 때 시의적절하다는 생각까지 든다. 아직도 유명한 디자이너 중심의 단선적 역사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그것이 유일한 디자인의 역사라고 굳게 믿는 디자인 전공자들이 '다른' 디자인사도 있다는 것을 알고, 다양함의 가능성을 감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한편으로 디자인을 궁급해 하는 인문학도들이 '예술' 디자인 이외에 '일상' 속 디자인의 존재와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sup>18)</sup>

『역사 서술의 서사 형식(narrative form)이 역사적 서술의 내용을 이미 결정한다』<sup>19)</sup>는 헤이든 화이트의 지적을 생각해보면 디자인사 연구에 일상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입시켜 나가는 디자인의 사회사적 접근 방식은 디자이너와 디자인 결과물을 중심에 놓고 서술되는 전통적 디자인사 서술 방식과는 다른 디자인의 역사를 구성하게 한다. 그리고 이것은 모던 디자인 중심의 기존 디자인사를 대체하거나 위협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일상생활을 매개로하여 이루어지는 다양한 학제간 연구는 디자인사 연구자들에게 새로운 시각과 방법론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개방적이고 풍요로운 연구를 해나갈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수용되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식민지시기를 경험하며 근대화, 산업화를 이룬 한국의 경우에 디자인의 역사를 서구와 동일한 모더니즘 기반의 근대 서사나 혹은 이에 대한 비판, 극복 또는 확장으로서만 파악하고 획일적으로 서술할 경우 한국의 전통 문화와 디자인의 관계, 근현대기 한국 사회의 변화와 디자인의 도입 과정 등을 명쾌하게 설명하기 어렵다. 서구적인 디자인 개념의 이해나 디자인 역사의 발전 과정 등에 대한 보편적 이해는 필요하지만 이와 더불어 한국 사회의 역사적 현실과 실제 사건, 경험, 기록 등을 바탕으로 한 일상 연구 차원의 디자인사 연구나 디자인문화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때 디자인의 사회사적 접근 방식은 하나의 방법론적 모델을 제시해준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연구의 대상이 되는 일상의 영역이 워낙 광범위하고 다루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레연구발표회, 심포지움, 워크숍 등의 활동과 더불어 학회지 『사회와 역사』와 <사회사연구총서> 시리즈 등을 출간하고 있다. 한국민속학회에서는 2005년 2월 25일에 '도시와 민속학'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 '현재학'으로서의 민속학과 사회민속학 등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했다.

18) 에이드리언 포터, *ibid.*, p.305.

19) 다음 글에서 재인용. 주윤정, 식민지적 근대성과 일상생활론, 한국사회사학회 2005년 특별 심포지움; 자료집: 일본 제국주의와 일상생활의 변화, 2005, p.57.

타 분야에서 이루어진 연구 성과와 방법론을 공유해가면서 점차 디자인 고유의 역사 연구 및 교육 방법론을 개발해나갈 것이다.

## 4-2. 질적연구방법론 도입의 필요성

<일상·지역·역사> 전시회를 기획했던 김진송 큐레이터는 '일상의 시각문화적 현상을 사회사의 범주에서 재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일상 속에서 체험되는 시각적 현상과 그로 인한 삶의 표준과 질의 변화는 결코 거대한 사건으로 접철되는 사회의 역사를 통해서 밝혀지지 않는다'<sup>20)</sup>고 말한 바 있다. 이러한 그의 지적은 거시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를 우선시하며 구조적인 접근만을 시도하기 쉬운 사회사적 접근 방식의 한계를 지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디자인과 사회의 연관 관계를 주목하면서 디자인의 역사를 다양한 문화적 힘과 역량이 발현되는 일종의 장(場)으로서 파악하고 조망하기 위해서는 디자인의 사회사적 접근 방식과 더불어 인간의 문화와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 문화인류학자들이 사용해온 질적연구방법론의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질적연구방법은 사회적 실체와 현상이 어떻게 해석되고 이해되고 경험되고 생성되는가에 관심을 둔다는 점에서 넓은 의미의 해석적 연구이며, 자료가 창출되는 사회적 맥락에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문화에 대한 다양하고 중층적인 해석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sup>21)</sup> 햄머슬리는 양적연구방법과 질적연구방법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비교, 분석한 바 있다.

[표-5] 햄머슬리의 양적, 질적 연구 비교<sup>22)</sup>

비교 기준들	양적연구방법	질적연구방법
자료의 성격	숫자	말, 글
연구 환경	인공적-실험	자연적-현장조사
연구의 초점	행동	의미
자연과학 모델과의 관계	자연과학이 모델	자연과학이 모델이 아님
접근방식	연역적	귀납적
연구 목적	과학적 법칙(nomothetic)	문화적 양식(idiographic)
인식론적 입장	사실론	관념론

객관적인 양적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통계적 추리과정을 거쳐 특수한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제시함으로써 경험적인 검증을 거친 보편적 법칙을 찾아내고자 하는 양적연구방법<sup>23)</sup>은 디자인 연구에서 이미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디자인사와 디자인문화연구에 있어서는 해석적인 특성을 지닌 질적 연구 역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데이비드 브렛의 다음과 같은 지적은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경험적 연구와 해석적 연구의 상호 역할 분담과 시너지 효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20) 김진송, *일상, 예술, 역사, 일상·지역·역사: 해방 후 한국미술과 시각문화 전시회 도록*, 도서출판 광주비엔날레, 1997, p.8.

21) 윌택림, *ibid.*, p.18.

22) 윌택림, *ibid.*, p.21에서 재인용.

23) 김형숙, *시각문화 교육, 방법과 실천*, 시공사, 2004, p.11.



내 비판의 요점은 경험적 연구가 해석적 사상 구조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경험적 연구에 대한 강조가 제기되는 것은 우리에게 해석적 구조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지적 불안정의 표시이다. 건강한 분야에서는 논리적이며 개념적인 질의가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출발하며, 경험적 연구는 또 다른 목표를 지향하면서, 그 둘은 상호적으로 작용하고 영향을 미친다<sup>24)</sup>

참여관찰, 대화, 심층면접, 계보 사용, 제보자 사용, 구술사, 생애사, 텍스트 분석 등 다양한 연구 방법을 기반으로 하는 질적 연구의 도입은 디자인 관련 연구의 폭과 깊이를 넓혀주고 다양성을 확보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특히 토착인류학자가 자문화를 이해하고 조사하는 방식은 한국처럼 식민지시기를 통해 자국의 문화와 전통이 단절되어 있어서 현재의 삶과 과거의 역사를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생각하기 어려운 경우 매우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 근현대기 디자인문화에 대한 연구를 일종의 자문화 현지조사에 의한 결과 보고서, 즉 문화기술지(ethnography)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기술지적 특성은 이미 앞에서 살펴본 <일상·지역·역사>, <캠페인을 보면 사회가 보인다>, <신화 없는 탄생: 한국 디자인 1910-1960> 등에서도 어느 정도 찾아볼 수 있다. 다만 '문화기술지에는 연구 방법의 특성상 연구자가 어떻게 이런 연구결과를 얻게 되었는지, 즉 어떻게 이러한 문화 해석을 도출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방법론적 기술이 거의 필수적'이며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연구를 수행하였는가와 그것에 대한 자기성찰적인 부분은 질적 연구 결과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sup>25)</sup>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각 전시회의 사례는 몇 가지 아쉬운 점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캠페인을 보면 사회가 보인다>의 경우, 자료수집에 충실한 생활사 연구로서는 손색이 없지만 연구 결과에 대한 기획자의 문화적 해석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에서 단순한 자료전에 그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신화 없는 탄생: 한국 디자인 1910-1960> 전시회의 경우에도 20세기 초반부 한국 사회에 등장한 디자인 대상물의 생산과 유통, 소비와 관련한 1, 2차 자료들을 충실히 수집하여 정리하고자 했다는 점에서는 높이 평가할 만 하지만 연구자, 즉 전시의 기획자가 어떻게 이러한 연구결과를 얻게 되었는지, 어떤 관점에서 어떤 문화 해석을 도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는 점은 아쉬운 점이다. <일상·지역·역사>는 세 개의 전시회 사례 중 시기적으로는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이기는 하지만 자기성찰적인 부분에서 높은 신뢰성과 타당성을 보인 질적 연구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 5. 결론

연구를 진행하면서 본 연구가 혹시 다양성과 차이라는 미덕 속에서 자유롭게 진행된 사례들을 디자인사나 디자인문화연구라는 이름으로 거칠게 수렴하여 "하나로 모으려는 충동"을

지닌 것은 아닌가 스스로 경계하고 반문해보기도 했다. 또한 한편으로는 현재 한국의 디자인사나 디자인문화연구에 필요한 것은 해석이나 성찰 이전에 보다 구체적인 경험적인 자료의 축적과 이에 대한 세밀한 분석 작업이 아닐까 하는 생각 역시 들기도 했다. 하지만 다른 학문 분야에서도 그런 것처럼 디자인사나 디자인문화연구 역시 '추상적인 것과 구체적인 것, 사회적인 것과 개인적인 것들이 각각의 풍부하고 자극적인 텍스트들 속에서 변증법적으로 관계<sup>26)</sup>를 맺으면서 발전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된 실질적인 계기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최근 몇 년간 본 연구자가 흥미롭게 본 세계의 전시회들이 갖고 있는 공통된 문제의식은 무엇인가 하는 점이었고, 둘째는 대학에서 디자인사를 강의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동안 한국에 소개되어 온 디자인사 서술 방식과는 다르게 서술된 에이드리언 포티의 책 『욕망의 사물, 디자인의 사회사』를 어떻게 평가하고 수업에 반영할 것인가 하는 점이였다. 셋째는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 최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 근현대기 일상 문화에 대한 연구 성과들을 한국 디자인 역사 서술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론적 접근이 필요한가 하는 점 등이였다. 이러한 문제제기와 함께 시작된 본 연구는 결국 한국디자인사를 서술하고 교육하는 한 가지 방식으로서 디자인의 사회사적 접근 방식의 가능성을 살펴보고, 질적연구방법론 도입의 필요성을 논의하는데 이르게 되었다.

한국디자인사 서술의 어려움은 디자인 내, 외부적인 요인을 통해 설명되어질 수 있다. 모더니즘에 바탕을 둔 서구의 근대적 거대 서사는 식민지 경험이 없는 서구의 국가들에서는 별다른 모순 없이 쓰여 질 수 있고 극복되어질 수 있지만 한국처럼 근대화 과정이 식민지 경험과 맞물려 있고, 이후 분단으로 인한 이데올로기 문제까지 겹쳐져 있을 경우 20세기 초 서구 사회가 경험했던 모던 프로젝트를 통한 디자인사 서술 방식의 적용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한국적 상황에서는 식민주의, 민족주의, 근대주의, 산업주의, 국가주의 등이 서로 복잡하게 맞물려 있으며 한국의 근현대기를 살아내었던 초기 디자이너 세대들은 이러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경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신화 없는 탄생: 한국 디자인 1910-1960>이라는 전시회 제목에서 '신화 없는'이라는 말은 여러 의미를 지닐 수 있는데 그것은 어쩌면 결국 '주체 없는 과정'으로 성장해온 한국 디자인 역사의 일면을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다. 한국 근현대사의 역사적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한국디자인사에 대한 접근을 모더니즘에 바탕을 둔 위대한 디자인 전통과 디자이너 중심의 역사로 정리하려고 하기 보다는 오히려 사회사적 접근 방식을 통해 한국 사회의 역사와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면서 한국디자인사의 정체성을 마련해나 가려는 노력이 더 적절한 방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물론 요즘 국내 대기업의 제품들이 각종 국제 디자인상을 수상하기도 하고, 해외 시장에서 품질과 디자인을 인정받아 주목되는 사례들이 생기고 있으며 한류 열풍으로 한국의 문화적 잠재력에 대한 자부심이 커져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것은 아주 최근의 일이며 한국 문화 성장의 배경은 서구의 근대화 경험

24) 존 에이 워커, *ibid.*, p.26.

25) 윤택림, *ibid.*, p.131.

26) 존 에이 워커, *ibid.*, p.27.

과는 그 내용과 성질이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성공만을 단편적으로 주목하기보다는 학문적인 차원에서 차분히 한국디자인사와 디자인문화를 정리해내고 연구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디자인의 사회사적 접근이 갖는 의미는 실무 디자이너 교육에 필요한 기초적이고 도구적인 디자인 지식을 제공한다는 측면보다는 오히려 디자인을 사회적으로 확장하고 다양한 학제간 연구의 가능성을 모색하게 함으로써 변화하는 사회에 적합하고 미래지향적인 디자인 개념을 정립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때 학제간 연구는 디자인 전공자들이 타 학문 분야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측면만이 아니라 타 분야의 연구자들이 적극적으로 디자인의 개념과 내용을 이해하고 파악함으로써 이를 자신들의 분야에 접목시켜 새로운 해석과 시도를 해나가는 것들에 의미한다.

디자인은 본래가 학제간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어서 타 분야와의 교류에 있어 이러한 특성이 장점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한계로서 작용해온 것도 사실이다. 디자인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는 디자인 내적인 전문 지식을 축적하고 정리하는 일과 더불어 타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 성과들과 방법론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다학제간 논의와 모색의 과정을 통해서 디자인 분야가 더 확장되고 풍요로워지며 심화되어 질 수 있으리라고 본다.

## 참고문헌

- 김영나 엮음, 한국근대미술과 시각문화, 조형교육, 2002.
- 김형숙, 시각문화 교육, 방법과 실천, 시공사, 2004.
- 니콜라우스 페브스너, 서지상 외 역, 근대디자인의 개척자들, 대신기술, 1986.
- 니콜라우스 페브스너, 이대일 역, 근대 건축과 디자인: 산업혁명에서 20세기 초반까지, 미진사, 1986.
- 박해천, 모던 디자인사 서술의 역사적 맥락에 관한 연구: 니콜라우스 페브스너와 레이너 벤험의 디자인사 서술을 중심으로, 한국과학기술원 석사논문, 1995.
- 신화 없는 탄생, 한국 디자인 1910-1960 전시회 도록, 예술의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 2004.
- 아르놀트 하우스, 백낙청 외 역,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 창작과 비평사, 1999.
- 에이드리언 포티, 허보윤 역, 욕망의 사물, 디자인의 사회사, 일빛, 2004.
- 윤택림, 문화와 역사 연구를 위한 질적연구방법론, 아르케, 2004.
- 일상·기억·역사: 해방 후 한국미술과 시각문화 전시회 도록, 도서출판 광주비엔날레, 1997.
- 존 에이 워커, 정진국 역, 디자인의 역사, 까치, 1995.
- 최범, 한국 디자인사 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전제, 디자인학 연구, 통권 제58호, Vol.17, No.4, 2004.
- 캠페인을 보면 사회가 보인다 전시회 도록, 서울시립대학교 박물관, 2002.
- 한국 사회사학회 2005년 특별 심포지움 자료집: 일본 제국주의의 지배와 일상생활의 변화, 한국사회사학회, 2005.
- Clive Dilnot, *The State of Design History, Design Discourse*, Victor Margolin(ed.),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9.
- George H. Marcus, *What is Design Today?*, Harry N. Abrams, Inc., 2002.
- Guy Julier, *The Culture of Design*, Sage Publications, 2000.
- John Heskett, *Toothpicks & Logos: Design in Everyday Life*,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 Susann Vihma, *Design Historia: En Introduktion*, Raster, 2003.
- Victor Margolin, *Design History and Design Studies, The Politics of the Artificial: Essays on Design and Design Studies*,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2.